

경기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4.4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
 - 6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재고 각각 감소로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부문별로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6.0%, 대형마트 8.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2.8% 증가
 -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는 세일기간과 계절의 변화가 소비활동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
- 6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 서비스는 전월대비 포함,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7.3% 각각 하락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6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한 62.1%임
- 6월 서울의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9천명(2.0%) 증가한 4,988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3천명(0.5%), 여자는 86천명(4.1%) 각각 증가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2.1%) 2.0%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8% 상승하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 6월 서울의 실업률은 4.2%로 남자는 4.9% 상승, 여자는 3.3% 하락
 - 6월 서울의 고용률은 59.5%로 전국의 고용률(59.8%)보다 0.3%p 낮은 수준

부동산

- 5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4,81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7.6% 증가
 - 공공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및 4대강 공사, 발전시설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6.9%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학교 및 재개발주택공사, 국제업무지구 토지조성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64.1% 증가
- 6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3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서울(-0.3%)의 주택매매가격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재건축 아파트 약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세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 6월 주택전세가격 강북지역 상승폭 축소, 강남지역 상승세 지속
 - 서울(0.2%)은 강북지역(0.2%)과 강남지역(0.3%) 모두 전국평균을 하회하며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임

금융

- 5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5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6조 3,87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45% 증가
- 5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69개로 전월대비 14.2%(277개) 감소
- 5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5개로 전월대비 9.8%(4개) 증가
- 6월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서울의 수출은 42.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0.8%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컴퓨터, 편직물 등의 순
 - 6월 서울의 수입은 87.5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5.7% 증가.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순

| 생 · 산 |

6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시 산업생산지수는 94.4(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26.0%), 섬유제품(-25.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9.5%)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40.9%), 전기장비(45.3%), 인쇄 및 기록매체(11.4%) 등에서 증가
- 2/4분기로는 전년동분기대비 6.8% 증가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부문 감소, 경공업 부문 증가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하며 마이너스 증가세 유지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2.7% 증가하여 4개월째 플러스 성장세 유지

■ 6월 전국의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
- 부문별로는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10.6%)는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28.1%), 기계장비(49.8%) 등의 호조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 임대(-16.0%), 예술·스포츠·여가(-1.0%) 등에서 부진하였으나, 운수(12.6%), 보건·사회복지(12.3%), 교육(10.7%) 등의 호조로 4.4% 증가로 8개월 연속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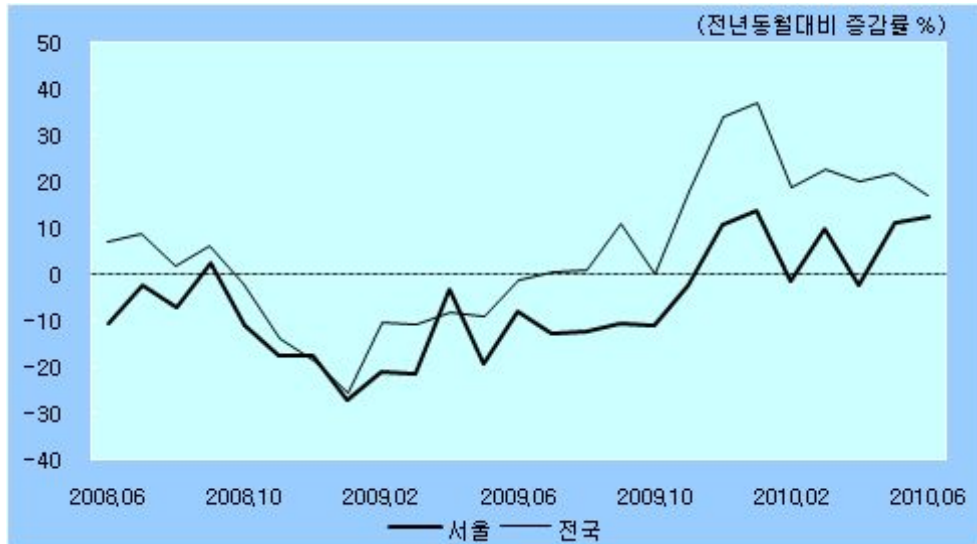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09년	2010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8.1	-1.6	9.7	-2.5	11.4	12.4
	중공업	-7.3	5.3	15.7	-21.6	-0.9	-3.8
	경공업	-8.8	-4.4	7.3	9.5	18.4	22.7
	전국	-1.1	18.9	22.7	20.1	21.7	16.9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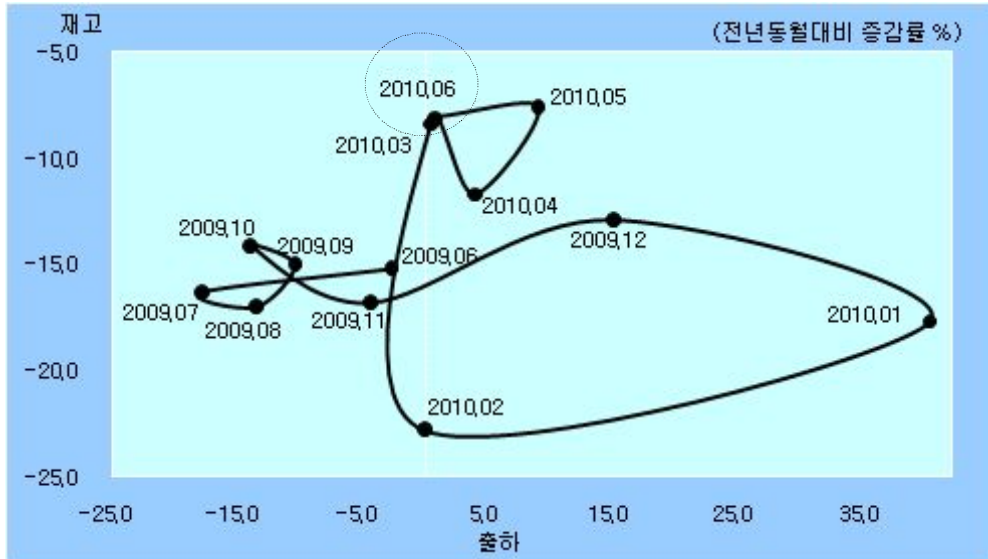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6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6월 서울의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재고 감소, 출하 증가

- 6월 서울의 재고지수는 138.2(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8.1% 감소,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식료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섬유제품 등에서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감소로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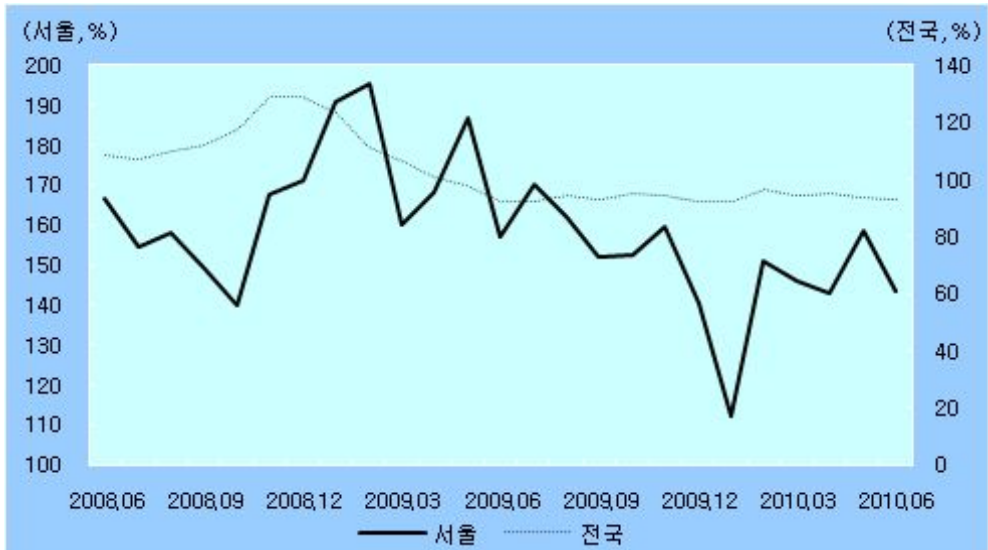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율 감소, 부문별로는 중공업, 경공업 각각 감소
 - 6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43.5%로 전월대비 14.9%p 감소하였고, 전국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92.7%로 전월대비 1.3%p 감소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38.2%p 감소한 136.8%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5.7%p 감소한 143.8%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구 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2009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재고율	서울	157.2	150.9	146.1	142.8	158.4	143.5	-14.9
	중공업	101.7	154.2	183.5	171.1	175.0	136.8	-38.2
	경공업	191.2	144.9	128.8	128.8	149.5	143.8	-5.7
	전국	92.2	96.3	94.6	94.9	94.0	92.7	-1.3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6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5,331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6.0% 증가, 대형마트 8.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세일기간과 계절의 변화가 소비활동 증가로 이어져 판매액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 6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5,307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2.9%, 대형마트는 6.7% 증가함
- 유형별로는 승용차,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내구재가 0.1% 감소,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10.0%, 식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4.0%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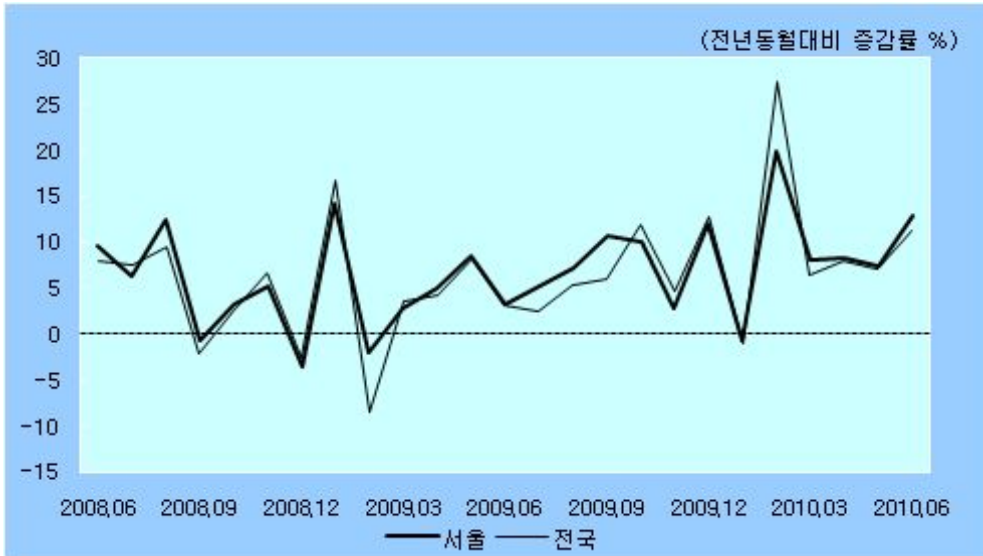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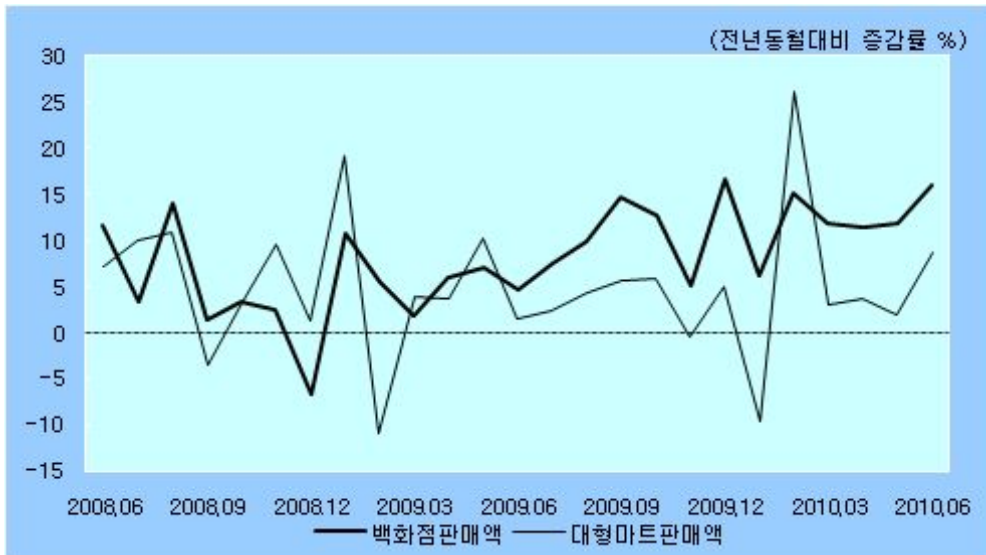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6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판매액	서울	1359.4 (3.3)	1529.7 (19.8)	1521.3 (8.0)	1544.1 (8.2)	1629.2 (7.5)	1533.1 (12.8)
	백화점	765.7 (4.7)	852.1 (15.2)	886.2 (11.9)	936.6 (11.4)	956.6 (11.8)	887.9 (16.0)
	대형마트 (할인점)	593.7 (1.5)	677.6 (26.1)	635.1 (3.0)	607.4 (3.6)	672.6 (1.9)	645.1 (8.7)
전국	4072.9 (3.2)	4805.4 (27.4)	4586.5 (6.4)	4501.4 (7.9)	4882.9 (7.0)	4530.7 (11.2)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6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하락

■ 6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9(전도사:115.5, 2005년=100)로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서비스는 전월대비 0.0%로 보합,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6월 서울의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7.3% 하락, 전년동월대비 9.3% 상승

■ 6월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하락하여 8개월만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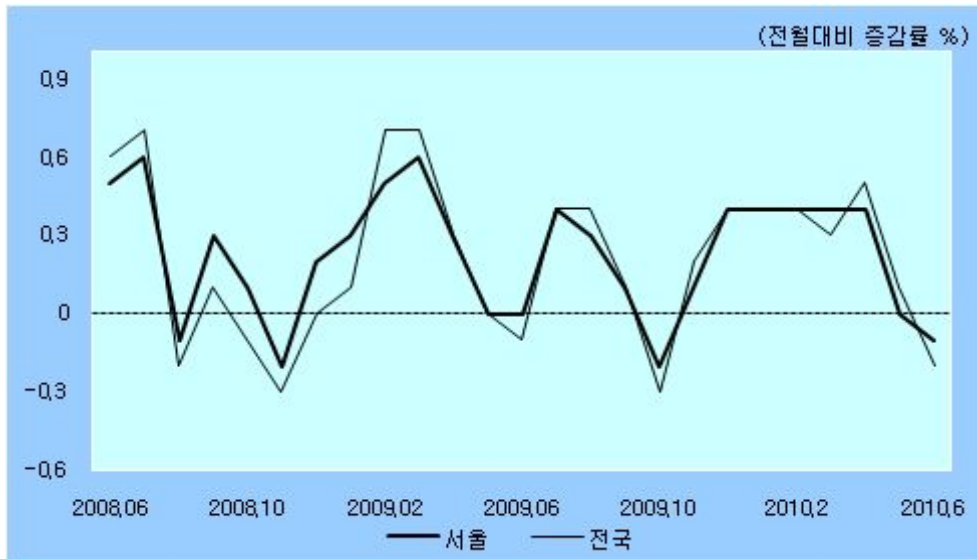
- 전국의 6월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5.5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여 2009년 11월 0.2% 상승 이후 8개월 만에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2.8%, 전년동기대비 3.1%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광주만 0.1% 상승하였고 서울, 부산 등 15개 시도는 0.1~0.3%씩 하락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비	서울	0.0 (2.6)	0.4 (2.7)	0.4 (2.6)	0.4 (2.3)	0.4 (2.5)	0.0 (2.5)	-0.1 (2.4)	
	상품 성질별	상품	-0.4 (3.0)	0.6 (4.2)	0.3 (3.3)	0.6 (2.8)	0.9 (3.2)	-0.3 (3.1)	-0.3 (3.2)
		서비스	0.2 (2.2)	0.3 (2.0)	0.4 (2.2)	0.3 (2.1)	0.2 (2.1)	0.2 (2.2)	0.0 (2.1)
	생활물가	-0.3 (1.5)	0.6 (3.4)	0.4 (3.3)	0.5 (2.9)	0.5 (2.7)	-0.3 (2.6)	-0.4 (2.5)	
	신선식품	-8.5 (10.7)	6.5 (4.5)	3.1 (6.0)	5.0 (7.8)	6.2 (10.5)	-4.2 (7.9)	-7.3 (9.3)	
	전국	-0.1 (2.0)	0.4 (3.1)	0.4 (2.7)	0.3 (2.3)	0.5 (2.6)	0.1 (2.7)	-0.2 (2.6)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6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15세 이상 인구는 8,38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명(0.8%)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2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6천명(1.7%)이 증가
- 경제활동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73.1% 여자는 51.8%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17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명(-0.7%)이 감소

■ 6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6월 15세이상인구는 40,5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5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5,15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1천명(0.9%)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636천명으로 58천명(0.4%)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522천명으로 173천명(1.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경제활동 인구	서울	-0.7 (0.6)	0.7 (0.1)	2.2 (0.2)	0.8 (0.2)	2.0 (1.5)	2.3 (0.5)	1.7 (-0.1)
	남자	0.0 (0.5)	0.7 (0.0)	1.5 (-0.1)	0.6 (0.3)	1.4 (0.9)	0.4 (-0.3)	0.1 (0.2)
	여자	-1.6 (0.7)	0.8 (0.2)	3.2 (0.6)	1.2 (0.1)	2.8 (2.3)	5.0 (1.5)	3.8 (-0.5)
	전국	0.8 (1.1)	1.6 (0.1)	1.6 (-0.2)	1.3 (1.4)	1.6 (2.0)	1.8 (1.0)	0.9 (0.2)
경제활동 참가율	서울	61.6	60.9	61.0	61.1	62.0	62.2	62.1
	남자	73.5	72.5	72.4	72.6	73.2	73.0	73.1
	여자	50.3	49.9	50.2	50.2	51.3	52.1	51.8
	전국	62.2	59.6	59.5	60.3	61.4	61.9	62.0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6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

■ 6월 서울의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취업자는 4,98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천명(2.0%)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28천명, 여자는 2,16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3천명(0.5%), 여자는 86천명(4.1%)이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전가운수통산금융업 49천명(6.5%), 건설업 19천명(5.2%), 제조업 26천명(5.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8천명(2.0%)이 각각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34천명(-2.5%)이 감소하였으며, 농림어업은 전년동월과 동일하게 나타남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2.1%) 2.0%p 차이를 나타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8%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6월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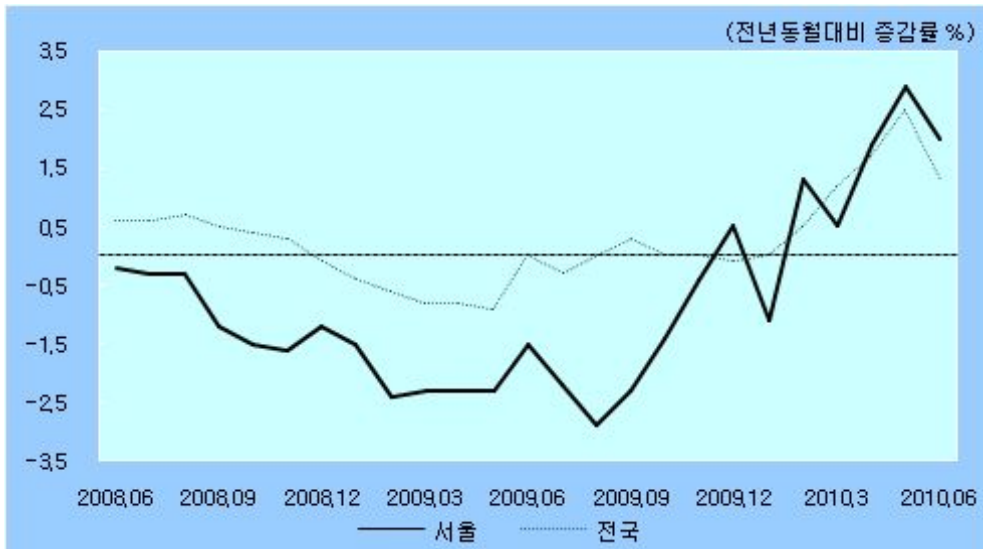
- 전국의 6월 취업자는 24,2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4천명(1.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07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9천명(0.8%) 증가하였고, 여자는 10,210천명으로 205천명(2.0%) 증가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30대는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증가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1% 감소,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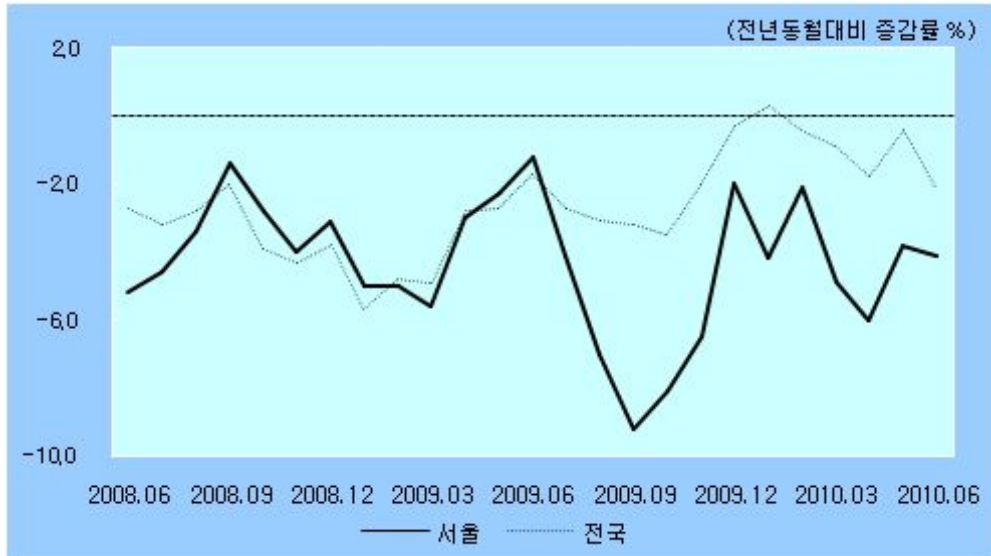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취업자	서울	-1.5 (0.7)	-1.1 (-1.9)	1.3 (0.4)	0.5 (0.9)	1.9 (1.6)	2.9 (1.4)	2.0 (-0.1)
	남자	-1.4 (0.4)	-0.9 (-2.4)	0.9 (0.1)	0.9 (1.1)	1.0 (0.6)	0.6 (0.9)	0.5 (0.3)
	여자	-1.6 (1.2)	-1.4 (-1.3)	1.7 (0.8)	0.1 (0.6)	3.1 (3.1)	6.0 (2.1)	4.1 (-0.6)
	전국	0.0 (1.0)	0.0 (-1.6)	0.5 (0.0)	1.2 (2.2)	1.7 (2.3)	2.5 (1.6)	1.3 (-0.1)
청년층 취업자	서울	-1.2 (-0.9)	-4.2 (-0.7)	-2.1 (-1.1)	-4.9 (-3.0)	-6.0 (2.6)	-3.8 (4.4)	-4.1 (-1.2)
	전국	-1.7 (-0.2)	0.3 (1.1)	-0.4 (-2.3)	-0.9 (-1.8)	-1.8 (2.0)	-0.4 (3.1)	-2.1 (-1.9)
고령층 취업자	서울	6.4 (7.4)	3.8 (-10.1)	6.7 (0.6)	9.4 (8.1)	13.6 (4.5)	16.2 (2.9)	7.8 (-0.4)
	전국	4.7 (4.3)	-4.5 (-8.0)	-1.7 (3.0)	0.5 (12.7)	4.0 (9.4)	5.8 (4.8)	2.4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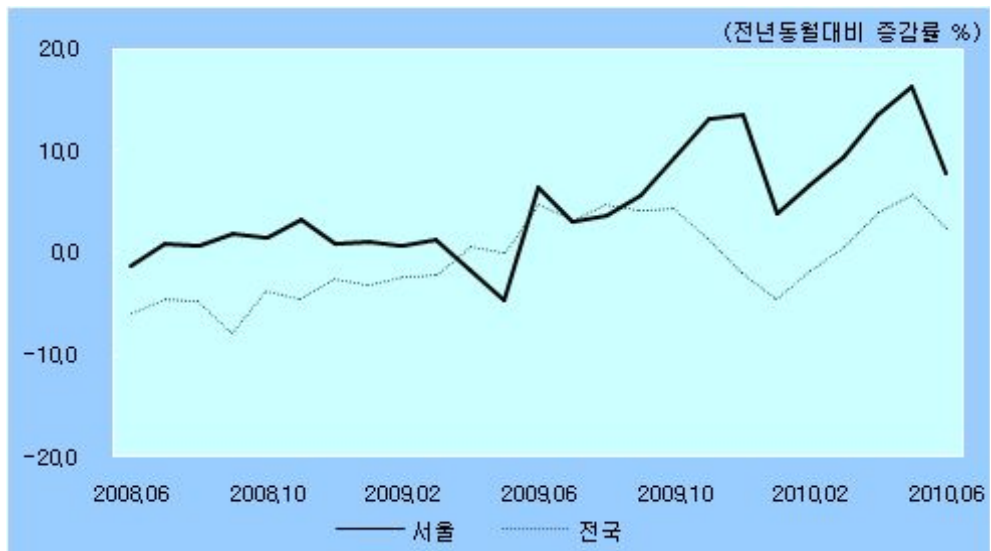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서울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단순종사자 등은 증가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천명(61.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30천명(10.0%), 사무종사자 23천명(2.7%), 전문·기술·행정관리자 4천명(0.3%)이 각각 증가
- 서비스·판매종사자 60천명(-4.7%)이 감소

■ 서울의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208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78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17천명(-1.4%)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16천명(3.2%)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3천명(-2.2%)이 감소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6천명(3.5%)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9천명(6.0%), 임시근로자는 80천명(6.9%)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84천명(-16.7%)이 감소

■ 서울의 36시간 미만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일시휴직자도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미만 취업자는 60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명(-2.1%)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4,31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4천명(2.5%)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천명(-4.7%)이 감소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2천명(-0.5%)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3천명(2.9%)이 증가하였고, 54시간 이상 취업자도 21천명(1.5%)이 증가
- 일시휴직자는 6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14.6%)이 증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2시간으로 전년동월과 동일하게 나타남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별	제조업	-17.2 (-4.8)	-7.5 (0.1)	0.3 (2.1)	-7.2 (3.2)	5.1 (3.1)	0.5 (-0.1)	5.1 (-0.4)
	SOC 및 기타서비스업	0.8 (1.4)	-0.3 (-2.1)	1.4 (0.2)	1.6 (0.6)	1.5 (1.5)	3.2 (1.6)	1.7 (-0.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6.6 (2.9)	-1.0 (-4.0)	0.0 (1.7)	1.9 (1.4)	2.8 (3.5)	4.5 (2.0)	2.0 (0.5)
	도소매·음식숙박	-1.0 (1.1)	3.0 (-0.5)	3.2 (-1.2)	1.0 (-1.8)	-0.4 (-1.0)	2.8 (2.4)	-2.5 (-4.2)
	전기·운수·통신·금융	-1.5 (-0.3)	2.8 (1.0)	6.6 (0.3)	6.7 (-0.8)	4.0 (0.7)	3.3 (0.0)	6.5 (2.8)
	건설업	-13.6 (-1.4)	-14.6 (-5.9)	-9.3 (-2.4)	-7.5 (9.0)	-3.6 (2.4)	-2.2 (0.2)	5.2 (6.1)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0 (2.1)	1.2 (-1.1)	-0.7 (-0.6)	0.6 (-0.3)	0.2 (2.0)	1.2 (0.0)	0.3 (1.1)
	기능·기계작·조립·단종사자	-8.6 (0.1)	-4.9 (-4.7)	3.4 (3.3)	2.9 (5.9)	10.6 (4.0)	10.4 (2.5)	10.0 (-0.2)
	서비스·판매종사자	-0.9 (0.8)	-0.4 (1.2)	0.6 (-1.8)	-1.5 (-1.8)	-2.4 (-1.1)	-0.9 (1.5)	-4.7 (-3.0)
	사무종사자	2.4 (-0.9)	-0.1 (-3.6)	2.4 (1.3)	-0.2 (-1.1)	-2.1 (1.3)	-0.3 (1.8)	2.7 (2.1)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0 (1.2)	-2.3 (-3.0)	0.7 (0.7)	-0.1 (1.0)	1.8 (2.0)	4.2 (2.3)	3.2 (0.1)
	비임금근로자	-2.8 (-0.6)	2.6 (1.4)	2.9 (-0.4)	2.6 (0.5)	2.3 (0.7)	-1.0 (-1.3)	-1.4 (-1.0)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6월 서울의 실업률 하락, 고용률은 상승

- 6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높은 수준
 - 6월 실업자는 2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명(-5.8%)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6.2%)이, 여자는 74천명으로 4천명(-4.8%)이 각각 감소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9%로 전년동월대비 0.4%p, 여자는 3.3%로 0.3%p 각각 하락

- 6월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 6월 실업자는 8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천명(-8.6%)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8.2%) 감소하였고, 여자는 31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2천명(-9.3%) 감소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자는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3%p 상승

- 6월 서울의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국의 고용률 보다 낮은 수준
 - 6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여자는 50.0%로 1.6%p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9.8%)에 비해 0.3%p 낮은 수준임
 - 전국의 6월 고용률은 59.8%로 전년과 동일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하였고, 여자는 49.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와 60세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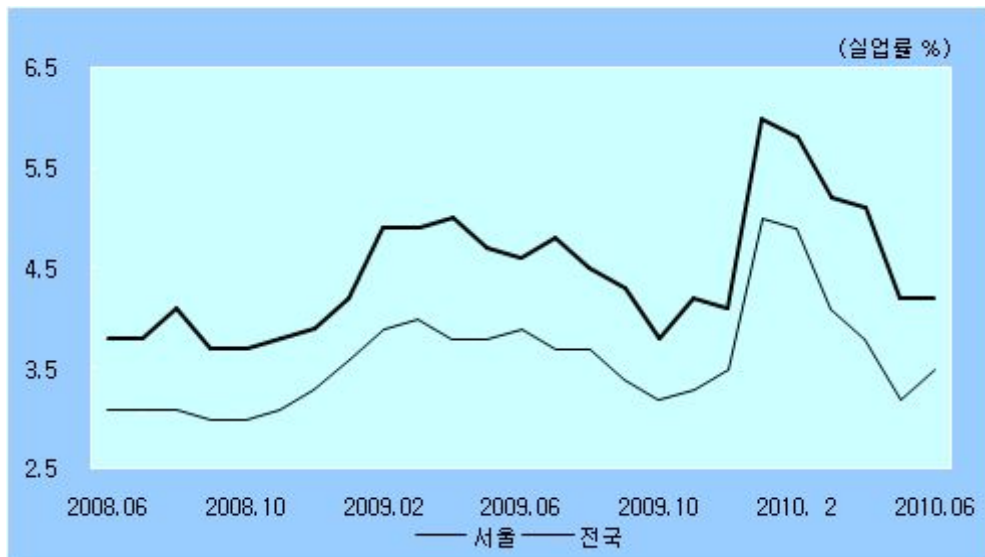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분	2009년 6월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실업률	서울	4.6	6.0	5.8	5.2	5.1	4.2	4.2
	남자	5.3	6.7	6.5	5.8	6.1	5.0	4.9
	여자	3.6	5.1	4.9	4.5	3.7	3.1	3.3
	전국	3.9	5.0	4.9	4.1	3.8	3.2	3.5

		2008년	2009년					2010년	
		2/4	1/4	2/4	3/4	4/4	1/4	2/4	
청년층 실업률	서울	7.8	8.9	7.8	8.4	7.8	10.0	8.1	
	전국	7.4	8.6	8.0	8.1	7.6	9.5	7.7	
고령층 실업률	서울	2.2	2.0	3.2	2.0	1.7	7.2	4.3	
	전국	1.2	1.6	1.9	1.6	1.5	5.8	2.1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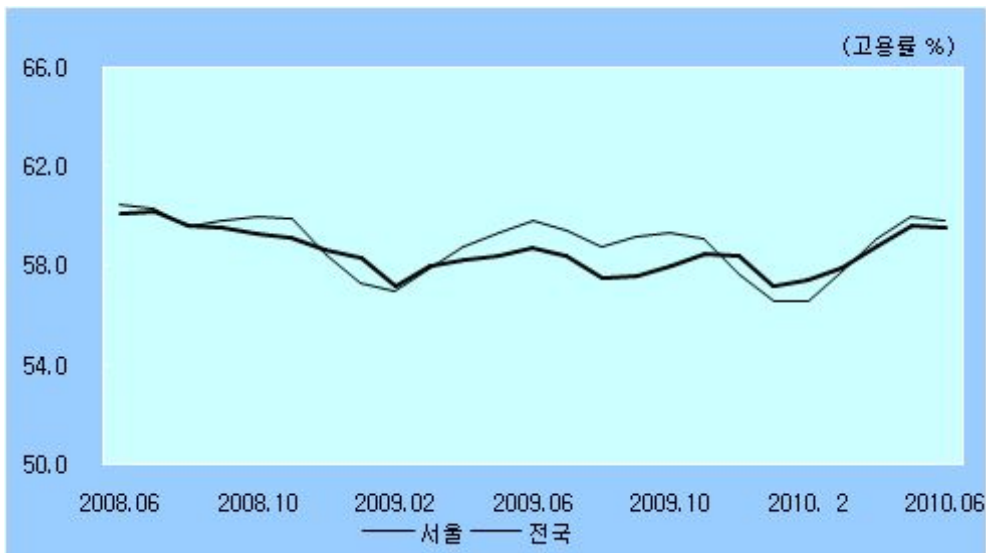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고용률	서울	58.7	57.2	57.4	57.9	58.8	59.6	59.5
	남자	69.6	67.6	67.7	68.4	68.8	69.3	69.5
	여자	48.5	47.4	47.7	48.0	49.4	50.4	50.0
	전국	59.8	56.6	56.6	57.8	59.1	60.0	59.8

		2008년	2009년				2010년	
		2/4	1/4	2/4	3/4	4/4	1/4	2/4
청년층 고용률	서울	46.4	43.9	45.6	43.8	42.8	42.8	44.1
	전국	41.9	39.9	41.1	40.7	40.1	40.1	40.8
고령층 고용률	서울	31.4	28.7	30.3	31.1	32.5	29.4	32.7
	전국	38.9	33.2	38.3	38.9	36.4	31.4	38.4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5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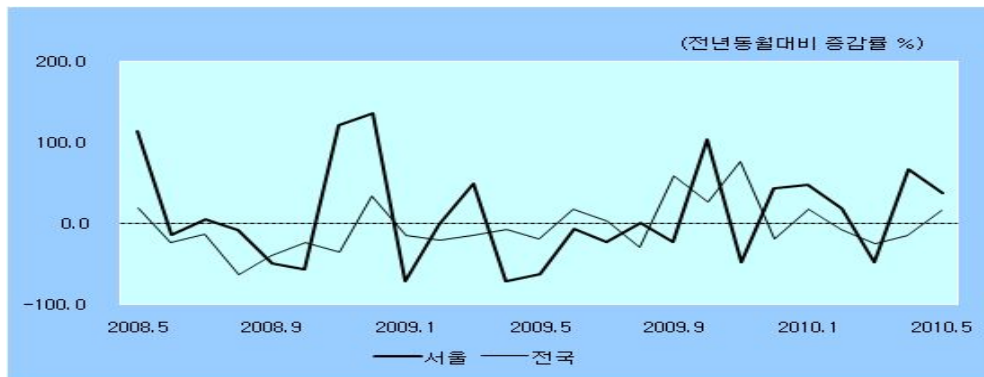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4,81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7.6%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8조 3,53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8%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7.7%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및 4대강 공사, 발전시설 공사 등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86.9%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학교 및 재개발주택공사, 국제업무지구 토지조성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64.1% 증가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서울	1,076	933	1,293	891	1,032	1,481	37.6	43.5
발주 자별								
공공	199	109	362	213	58	26	-86.9	-55.2
민간	872	778	931	606	973	1,430	64.1	47.0
공종 별								
건축	978	828	1,094	705	944	1,406	43.7	48.9
토목	98	105	199	186	88	75	-22.8	-14.8
전국	7,151	6,643	4,615	5,590	6,418	8,354	16.8	30.2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가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서울 3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6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두 달 연속 보합세
 - 6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102.4)은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두 달 연속 보합으로 나타남.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매수세 위축이 지속되는 모습
- 서울 주택매매가격 3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 6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 -0.3%)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보금자리 주택, 장기 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 재건축 아파트 약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세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6월	5월	5월	6월		
서울	99.7	102.8		102.5	2.7	-0.3
아파트	99.7	102.4		101.8	2.1	-0.6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9.4	102.0	101.6	2.3	-0.3
	강남	100.1	103.7	103.3	3.2	-0.3
전국	99.4	102.4		102.4	3.0	0.0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3개월 연속 하락

- 강북지역(-0.3%)은 중랑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세 달 연속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도봉구(-1.0%), 노원구(-0.8%), 용산구(-0.4%), 성동구(-0.4%)가 하락을 주도
- 도봉구(-1.0%)는 보금자리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기대하는 수요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인근지역인 남양주 진접지구나 미아뉴타운, 길음뉴타운 등으로 입주하는 세대의 급매물 증가 등 매물적체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
- 노원구(-0.8%)는 보금자리주택으로의 관심 이동 및 경기침체와 대출규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보도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인근 남양주 진접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락

■ 강남지역 두 달 연속 하락세 지속

- 강남지역(-0.3%)은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영등포구(-0.8%), 서초구(-0.5%), 강남구(-0.4%), 금천구(-0.4%)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짐
- 영등포구(-0.8%)는 계절적 비수기인 영향과 보금자리주택, 강남 재건축 약세, DTI 규제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부동산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락
- 서초구(-0.5%)는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어 하락

■ 6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3개월 연속 하락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6월 25일 기준)은 1,817.49만원으로 전월(1,826.58만원) 대비 0.50% 하락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332만원), 서초구(2,858만원), 용산구(2,579만원), 송파구(2,407만원), 양천구(1,965만원), 광진구(1,886만원), 강동구(1,881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30만원), 도봉구(1,124만원), 중랑구(1,135만원), 강북구(1,15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서울 강북지역 상승폭 축소, 강남지역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불균형이 다소 완화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으나 2009년 3월 이후 16개월째 상승세를 지속
- 서울(0.2%)은 강북지역(0.1%)과 강남지역(0.3%) 모두 전국평균을 하회하며 상대적인 안정세를 보인 반면, 기타지방(0.6%)과 광역시(0.6%)는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감

■ 서울 강북지역 상승폭 축소, 강남지역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 지속

- 강북지역(0.1%)에서는 마포구(0.7%), 은평구(0.6%) 등에서 상승하였고, 성북구(-0.4%), 노원구(-0.4%) 등에서는 하락
- 마포구(0.7%)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여의도 업무지구 출퇴근 근로자 및 신혼부부의 꾸준한 수요로 전세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대흥 3구역 재개발 이주수요가 맞물리면서 지난달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은평구(0.6%)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수를 꺼려하고 전세로 선회하는 수요가 증가하며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함. 성북구(-0.4%)는 강북구 미아뉴타운 5월 입주물량과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길음뉴타운 7, 8, 9 단지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
- 강남지역(0.3%)에서는 송파구(0.7%), 양천구(0.6%), 동작구(0.4%)가 상승을 주도하였고, 서초구(-0.2%)는 전월대비 하락
- 송파구(0.7%)는 전세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가운데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으로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함. 양천구(0.6%)는 신월동뉴타운 이주 영향으로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함. 서초구(-0.2%)는 학군 수요가 마무리되고 신혼부부 수요가 감소하는 등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거래가 한산해지면서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지속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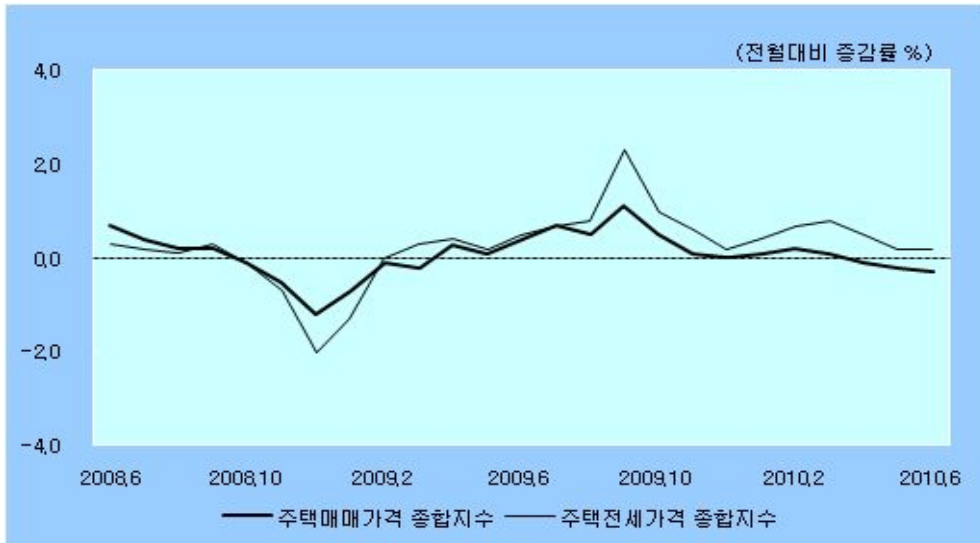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6월	5월	6월		
서울	100.2	108.8	109.0	8.7	0.2
아파트	100.9	111.4	111.6	10.5	0.2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9.4	106.4	106.5	7.2	0.1
강남	101.1	111.1	111.5	10.3	0.3
전국	99.6	106.1	106.6	7.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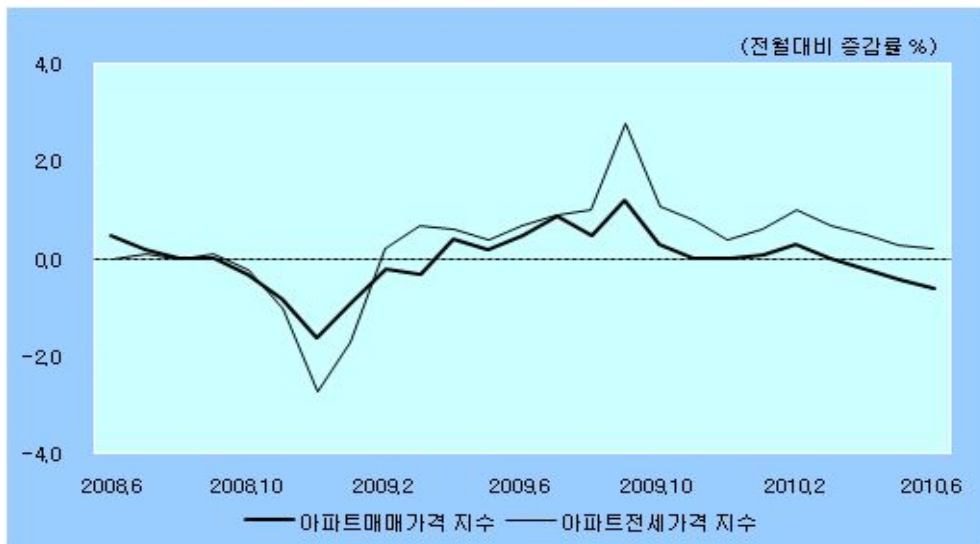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6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2.1%로 전월(41.8%)보다 0.3%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2010년 1월 40.7% → 2월 41.0% → 3월 41.3% → 4월 41.5% → 5월 41.8%)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5.2%보다 13.1%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2%p)보다 소폭 하락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4.6%, 강남 39.9%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7%p이며 지난 달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준.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6월 국고채 금리 크게 상승하였다가 다시 상승폭 축소

■ 6월 중 국고채 금리 크게 상승 후 다시 상승폭 축소

- 6월 중 국고채 금리는 경기상승세 지속 및 물가상승압력 증대 전망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기대 강화 등으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월말경 미국 및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폭 축소

■ 회사채 금리도 상승세 이어가다가 상승폭 축소

- 회사채(3년) 금리는 월말경까지는 전월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후 상승폭 축소
- CD(91일) 금리는 전월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월 하순경 1bp 상승하여 2.46%를 지속

■ KOSPI 지수 급등하였다가 다시 상승폭 크게 축소

- 6월 중 코스피는 국내경기 상승세 지속 기대, 글로벌 주가 상승 등으로 6.24일 1,740p까지 급등하였다가 월말경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폭이 크게 축소 (3월말 1,693p → 4월말 1,742p → 5.25일 1,561p → 5월말 1,641p → 6월말 1,698p)

■ 6월중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에서 소폭 순매수로 전환

- 외국인의 6월중 국내주식은 대규모 순매도로부터 소폭 순매수로 전환
- 7월 들어서는 다시 순매도하는 모습
외국인 순매수(조원): 1월 0.7조원 → 2월 -0.0조원 → 3월 5.4조원 → 4월 5.5조원
→ 5월 -6.3조원 → 6월 0.6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B-A)	
	6월	3월	4월	5월(A)	6월(B)	7.22일		
금리	국고채(3년)	4.09	3.94	3.77	3.70	3.75	3.82	0.05
	CD(91일물)	2.41	2.83	2.51	2.45	2.45	2.63	0.00
	콜금리(1일)	1.93	2.01	2.00	2.01	2.00	2.27	-0.01
	장단기 금리차 ¹⁾	1.68	1.11	1.26	1.25	1.30	1.19	0.05
주 가	KOSPI	1,395.24	1665.50	1730.29	1,648.30	1,691.94	1,735.53	43.64
	KOSDAQ	516.39	518.70	512.86	497.85	493.3	484.72	-4.55
환율 (W/US\$)	1,262.28	1,136.11	1,115.71	1,168.41	1,214.02	1,204.00	45.61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6월 중 은행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

- 6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
- 마이너스통장대출이 전월의 특이요인* 소멸, 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등으로 소폭 감소로 전환한 데 주로 기인
- * 삼성생명 우리사주 및 일반 공모주 청약, 계절요인(어린이날, 어버이날)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낮은 대출금리 수준, 입주물량 증가, 6월말까지의 수도권 미분양주택 세제혜택 등의 영향으로 2.7조원 늘어나 증가규모 확대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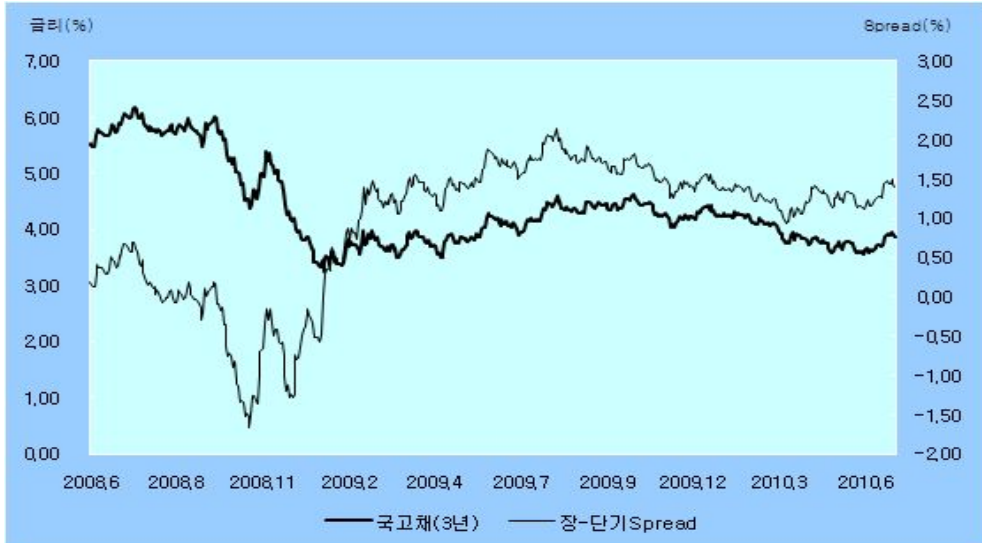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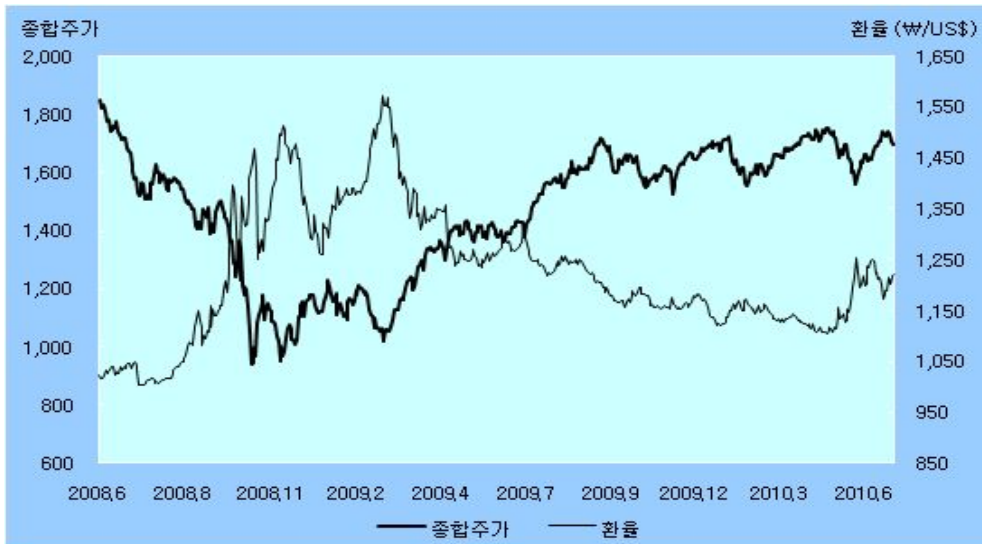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전월대비 증감률
		2010년							
	연중	2월	3월	4월	5월	6월	5월	6월	
가계대출 ¹⁾	20.1	-0.2	1.9	1.7	4.4	2.5	415.4	417.9	0.60
주택담보대출 ²⁾	25.4	0.7	2.5	1.8	1.7	2.5	270.7	273.2	0.92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0.9	-0.6	0.0	2.7	-0.0	143.7	143.7	0.00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5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16조 3,873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2조 3,318억원 (0.45%) 증가
- 5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86조 9,165억원으로 전월대비 8조 2,671억원 (0.65%)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1월	2월	3월	4월	5월		
서울	예금은행	943,796.40	415,482.2	415,746.7	419,168.0	421,795.5	2,627.5	0.63
	비은행기관	284,582.20	93,255.1	93,318.7	94,887.5	94,591.8	-295.7	-0.31
	합계	1,228,378.60	508,737.3	509,065.4	514,055.5	516,387.3	2,331.8	0.45
전국	예금은행	417,257.80	958,052.8	962,695.9	967,784.2	974,047.5	6,263.3	0.65
	비은행기관	85,176.60	307,711.4	308,949.1	310,865.2	312,869.0	2,003.8	0.64
	합계	502,434.40	1,265,764.2	1,271,645.0	1,278,649.4	1,286,916.5	8,267.1	0.65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 · 설 · 법 · 인 · 동 · 향 |

5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669개로 전년동월대비 17.0%(243개)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4.2%(277개) 감소
- 5월 전국의 신설법인은 전년동월비로는 13.3%(536개) 증가하였고 전월비로는 17.1%(943개) 감소함. 신설법인 전년동월비는 2009년 6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14.1%(159개) 증가, 제조업 26.6%(54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31.9%(2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건설 및 설비업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426	1,633	2,044	1,946	1,669	-277	-14.2	243	17.0
서비스업	1,127	1,247	1,539	1,513	1,286	-227	-15.0	159	14.1
제조업	203	248	342	283	257	-26	-9.2	54	26.6
건설 및 설비업	91	132	158	141	120	-21	-14.9	29	31.9
전국	4,029	4,668	5,652	5,508	4,565	-943	-17.1	536	13.3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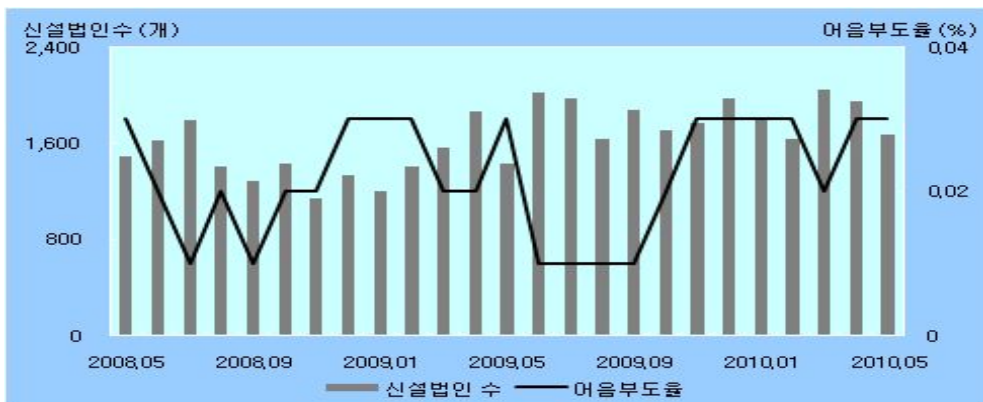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신설/부도법인 비율 하락
 - 5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과 같은 수준, 전국의 어음부도율도 0.03%로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45개로 전월대비 9.8%(4개) 증가, 전국의 부도업체수는 120개로 전월대비 4.0%(5개) 감소한 수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비율은 42.8배로 전월(55.6배)보다 하락하였고,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비율은 47.6배로 전월(60.5배)보다 크게 하락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5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4	0.03	0.02	0.03	0.03	0.00	0.0
	부도업체 수	151	38	48	41	45	4	9.8
	신설/부도법인비율	38.5	56.3	55.2	55.6	42.8	-12.8	-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3	0.02	0.03	0.03	0.00	0.0
	부도업체 수	52	111	144	125	120	-5	-4.0
	신설/부도법인비율	39.9	63.9	53.3	60.5	47.6	-12.9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신용보증 공급건수 및 금액 전월대비 다시금 증가

■ 보증 건수 및 금액 전월대비 다시금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6월중 7,362건, 132,810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27.1%, 금액은 13.5%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건수는 32.4%, 금액은 36.9% 감소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6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0,894	6,580	7,004	5,791	7,362	1,571	27.1	-3,532	-32.4
금액	210,545	131,380	139,032	117,045	132,810	15,765	13.5	-77,735	-36.9
건당평균 금액	19.3	20.0	19.9	20.2	18.0	-2.2	-10.9	-1.3	-6.7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비중 증가

- 6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지원비중은 건수 기준시 제조업은 6.4%로 전월(6.0%)대비 0.4%p, 서비스업은 35.8%로 전월(15.8%)대비 20%p 각각 증가
- 금액 기준시 제조업은 8.9%로 전월(7.4%)대비 1.5%p, 서비스업은 24.6%로 전월(16.3%) 대비 8.3%p 각각 증가하였으나 음식·숙박업은 14.2%로 전월(18.0%)대비 3.8%p 감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474	2,430	1,193	2,635	630	7,362
비율	6.4	33.0	16.2	35.8	8.6	100
금액	11,812	54,885	18,918	32,679	14,566	132,860
비율	8.9	41.3	14.2	24.6	11.0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 및 중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비중 2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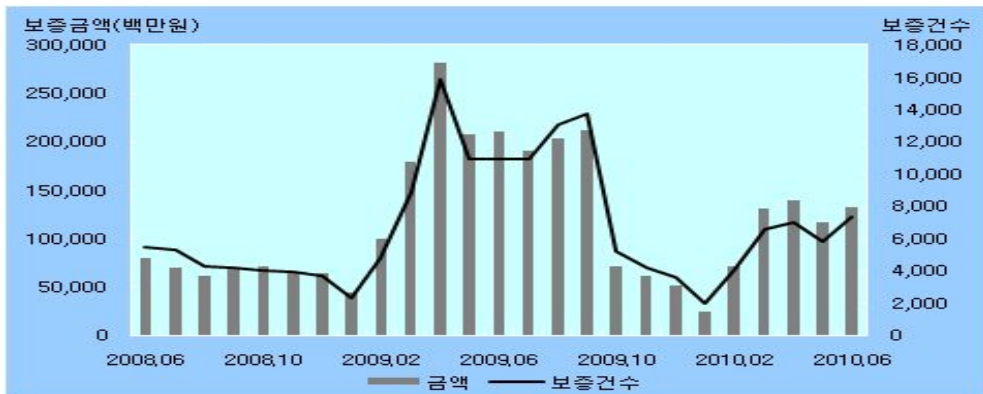
- 6월 기준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비중은 건수 기준시 소상공인은 97.4%로 전월(96.4%)대비 1.0%p 증가하였으나, 소기업은 2.1%로 전월(2.8%)대비 0.7%p, 중기업은 0.6%로 전월(0.8%)대비 0.2%p 각각 감소
- 금액 기준시 소상공인은 86.3%로 전월(89.3%)대비 3.0% 감소하였으나 소기업은 9.4%로 전월(7.1%)대비 2.3%p, 중기업은 4.3%로 전월(3.6%)대비 0.7%p 각각 증가하였음. 특히 소기업 및 중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비중이 2개월 연속 증가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10.4	2010.5	2010.6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6,781	5,583	7,167	1,584
	비율	96.8	96.4	97.4	1.0
	금액	126,098	104,467	114,552	10,085
	비율	90.7	89.3	86.3	-3.0
소기업	건수	182	160	154	-6
	비율	2.6	2.8	2.1	-0.7
	금액	9,432	8,360	12,546	4,186
	비율	6.8	7.1	9.4	2.3
중기업	건수	41	47	41	-6
	비율	0.6	0.8	0.6	-0.2
	금액	3,504	4,220	5,715	1,495
	비율	2.5	3.6	4.3	0.7
합계	건수	7,004	5,791	7,362	1,571
	비율	100	100	100	0
	금액	139,032	117,045	132,810	15,765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6월 서울의 수출은 42.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0.8% 증가하였고, 수입은 87.5억달러로 45.7% 증가
- 6월 전국의 수출은 419.2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0.1% 증가하였고, 수입은 354.9억달러로 38.2% 증가. 수출은 사상최대의 수준을 달성

■ 6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439,112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컴퓨터, 편직물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708,419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로 전년동월대비 866.2% 증가, 수입의 경우 항공기 및 부품으로 전년동월대비 438.0% 증가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2,492	3,031	3,644	3,770	3,924	4,256	1,764	70.8
	수입	6,004	7,277	8,756	8,924	8,499	8,746	2,742	45.7
전국	수출	32,210	33,138	37,450	39,433	39,099	41,921	9,711	30.1
	수입	25,689	31,062	35,632	35,378	34,971	35,493	9,804	38.2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6월		2010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491,925	-7.1	4,255,721	70.8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45,446	34.7	439,112	866.2
2	자동차부품	139,034	65	393,811	183.2
3	컴퓨터	113,870	11.9	254,449	123.5
4	편직물	184,054	5.9	222,542	20.9
5	반도체	138,090	36.2	218,044	57.9
6	합성수지	95,203	29.3	182,773	92
7	무선통신기기	85,569	-41.4	150,956	76.4
8	고무제품	123,984	30.5	144,520	16.6
9	금은 및 백금	37,572	-19.2	126,730	237.3
10	합성고무	24,059	-1	101,898	3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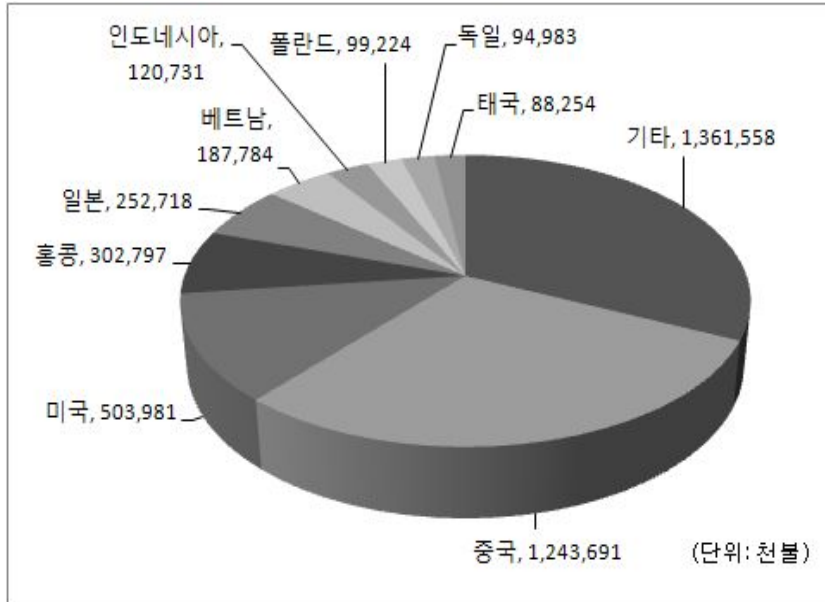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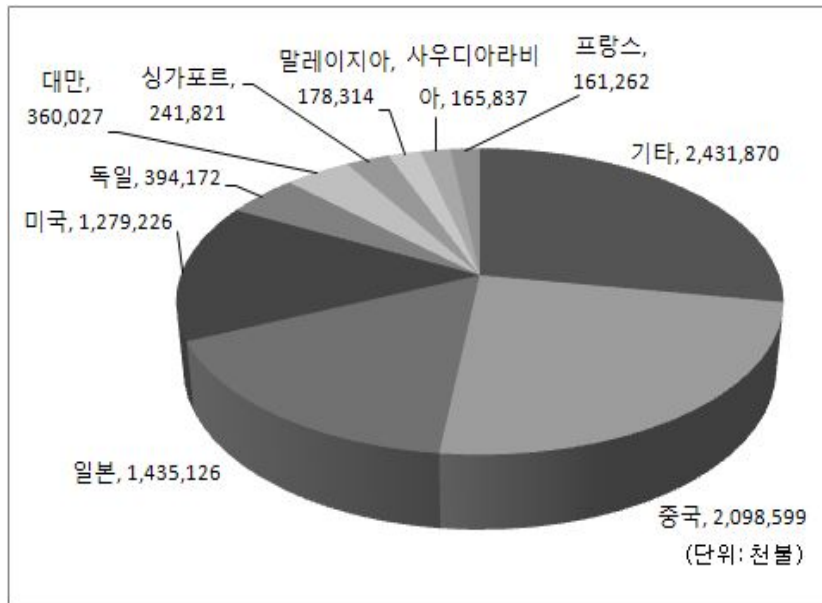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6월		2010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6,004,395	-16.0	8,746,254	45.7
1	반도체	658,094	53.8	708,419	7.6
2	석유제품	180,340	306.7	664,303	268.4
3	컴퓨터	381,239	-8.1	539,586	41.5
4	항공기 및 부품	57,456	-38.7	309,104	438.0
5	자동차	229,126	95.0	255,074	11.3
6	무선통신기기	136,071	15.7	253,016	85.9
7	플라스틱제품	192,211	172.1	218,061	13.4
8	농약 및 의약품	133,727	20.3	207,450	55.1
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36,265	76.3	206,182	51.3
10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67,248	-45.9	201,182	199.2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